

All Pictures and material are Copyright © ICON PRODUCTIONS, © NEWMARKET FILMS © ICON DISTRIBUTION, Inc.



What Jesus Christ went through....for you....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것들...



The final hours before his death.

예수님의 죽음전 마지막 시간들에... 1



The night before His sufferings, Jesus, under great pressure and stress, prays earnestly not to go through this coming misery.

But in obedience He says...,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예수님의 수난 전날밤, 예수님이 큰 압박감과 긴장감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②



For 30 pieces of silver, Judas, a 'friend' of Jesus, betrayed the son of God. Judas gave Jesus a kiss to identify him to the guards. The night before this, Jesus prophesied to his disciples, "One of you will betray me", "he who shares my bread, has lifted up his heel against me."

은 30을 위해 예수님의 '친구'인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군병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입맞추었습니다. 전 날밤에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의 빵을 같이 먹는 자는 나를 대항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When the guards arrested Jesus, all His friends ran away and deserted Him.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예수님의 모든 친구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In the struggle, one of the guards had his ear cut off by Peter. But Jesus turned and healed the guard. After this, Jesus was taken away.

소동중에, 베드로가 한 군병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서서 군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잡혀가셨습니다.



The guards tied him up, beat him and brought him to the Jewish Authorities for questioning.



군병들은
예수님을
결박하고,
때렸으며,
힐문하기
위해 유대
인의 권위
자들에게
로 보내지
셨습니다.



He was questioned, mocked, hit, slapped, ridiculed, spit upon and accused by His own people. Yet during all this, He kept silent like a lamb.

예수님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힐문하고, 비웃고, 치고,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비난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양처럼 조용하셨습니다.





Jesus was brought before the Roman Governor Pontius Pilate and then King Herod. After they questioned Him, they found none of the accusations against Him were valid. Each of these rulers refused to condemn Jesus, as His own people demanded.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왕 앞에 보내졌습니다.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왕이 예수님께 힐문한 뒤에 예수님을 향한 비난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 자신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비난하길 사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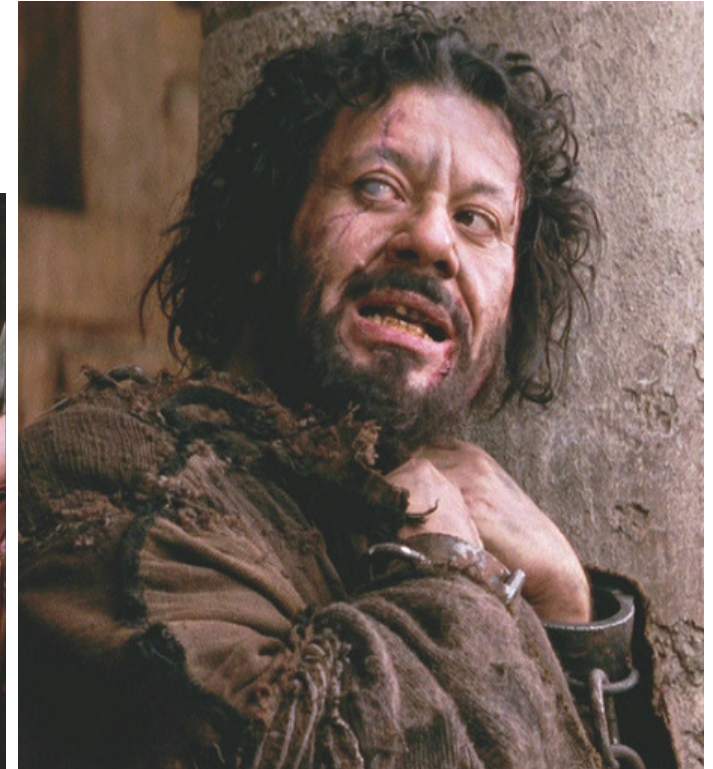
When the people became unruly, and demanded the death of Jesus, Pontius Pilate called in troops to control the Crowd. He then offered the crowd a deal. Pilate had another man named Barabus,

who was imprisoned for murder. He offered to free one of the accused prisoners, whoever the people chose; either Jesus or Barabus a murderer. **The people chose...**

사람들이 통제 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요청했을때, 본디오 빌라도가 군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불렀습니다. 그후에 군중들에게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살인혐의로 수감된 바라바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살인자 바라바중에 백성들이 선택한 죄수를 석방하도록 제안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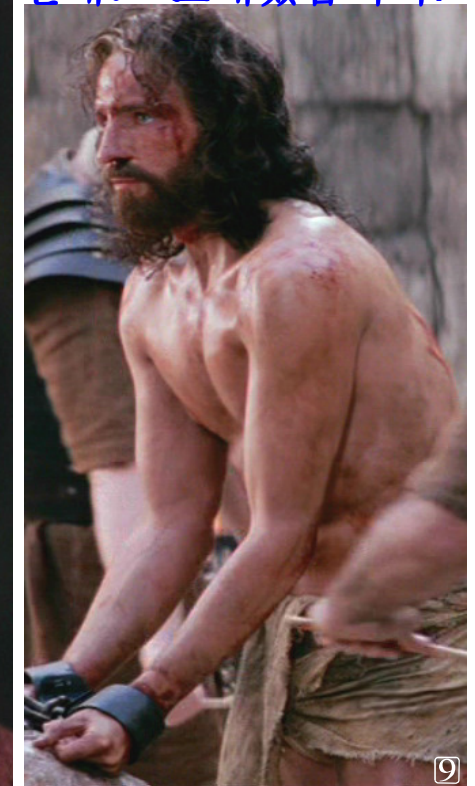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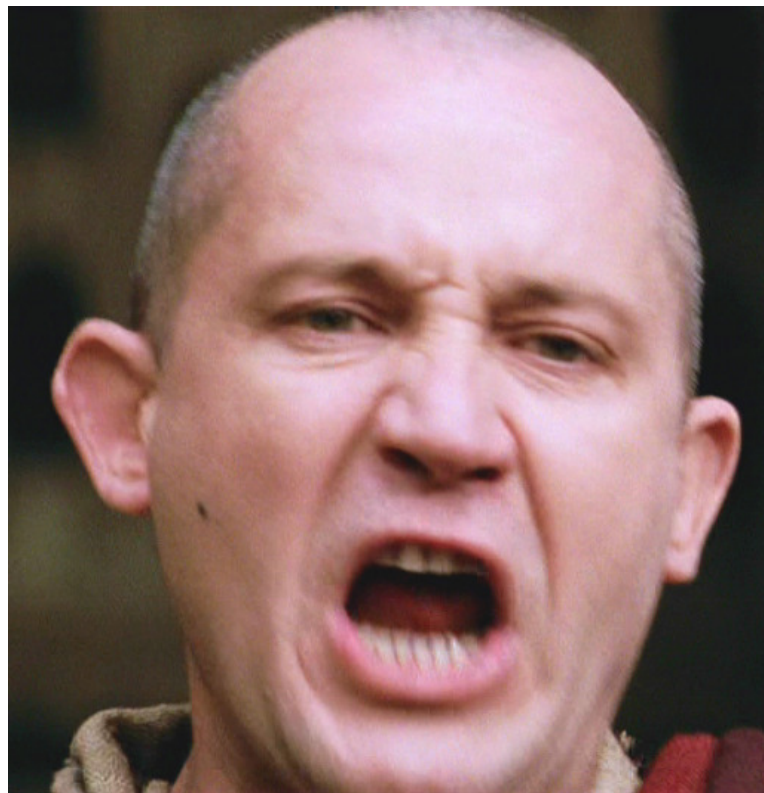
Barabus was unshackled and given his free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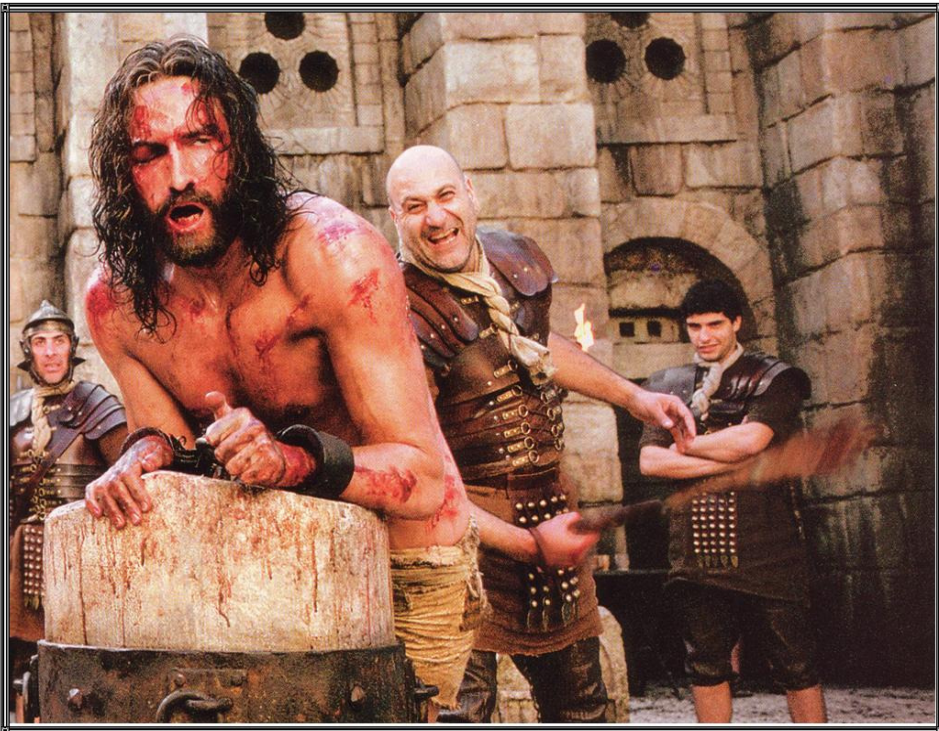
바라바는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But the people still demanded the death of Jesus. Pontius Pilate vehemently refuse. Instead, Pontius commanded that Jesus be severely chastised. So He was taken away to a regiment of Roman soldi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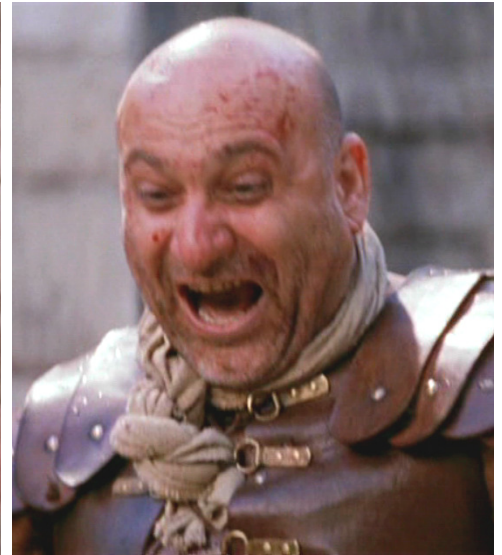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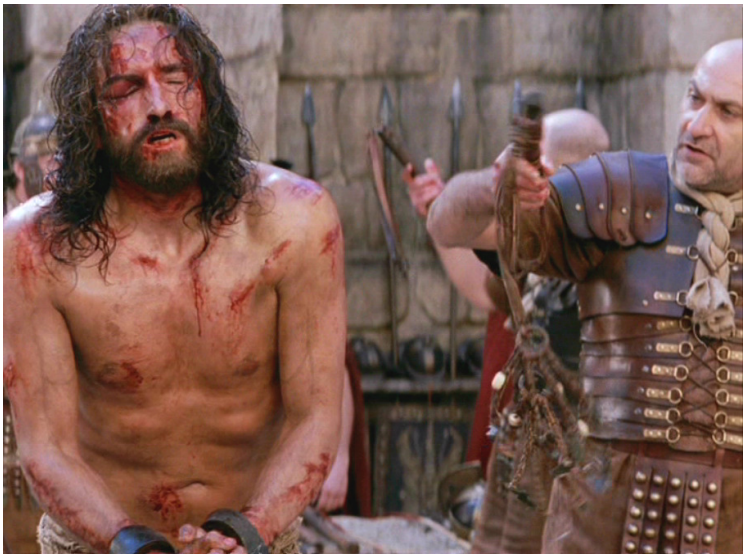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을 요청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에 본디오는 예수님을 엄하게 징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 연대로 보내졌습니다.





The Roman soldiers shackled Jesus to a post and beat Him merciless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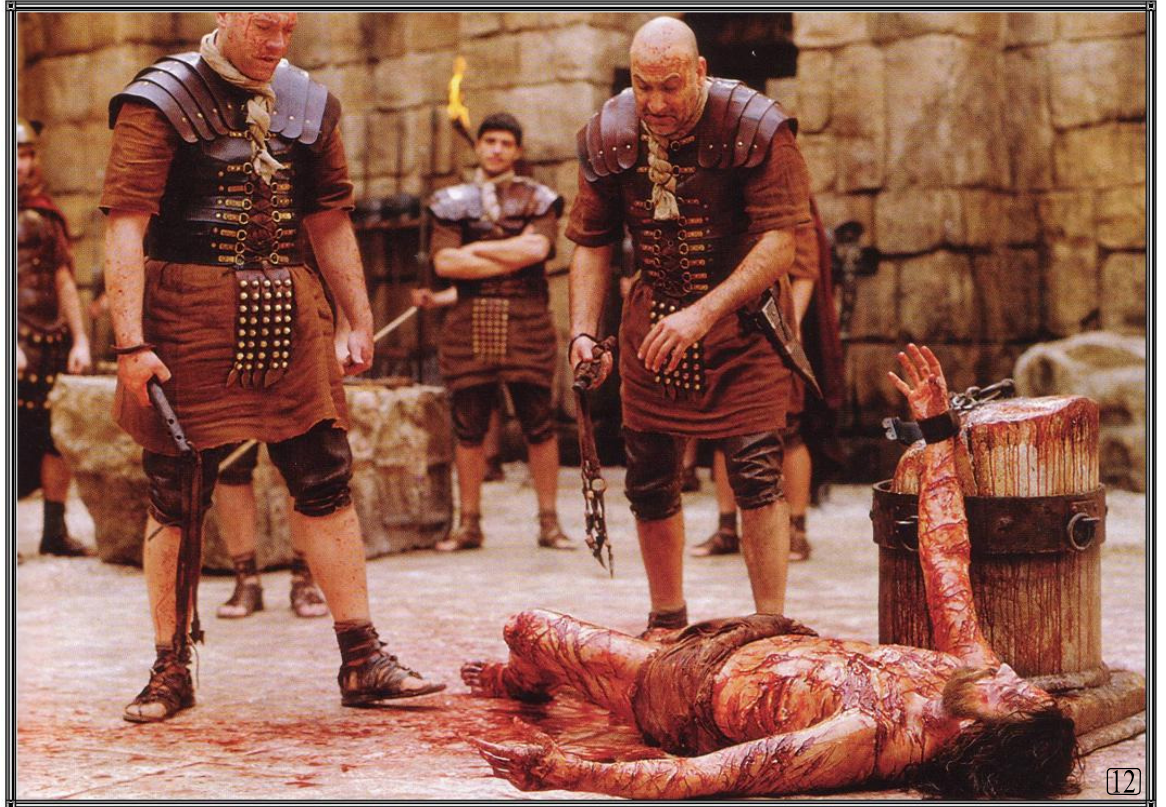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기둥의 족쇄에 채우고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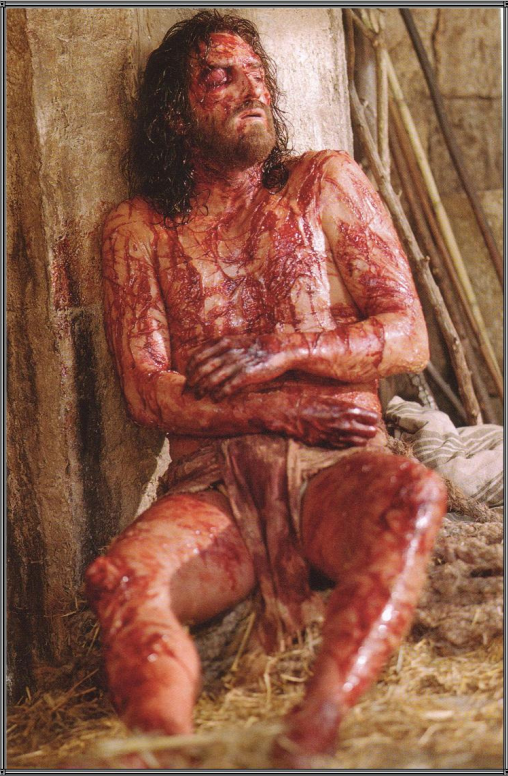




His family watched as the Roman soldiers finished 39 lashes.

로마 군병들이 39번의 채찍질을 마칠 때 예수님의 가족이 보고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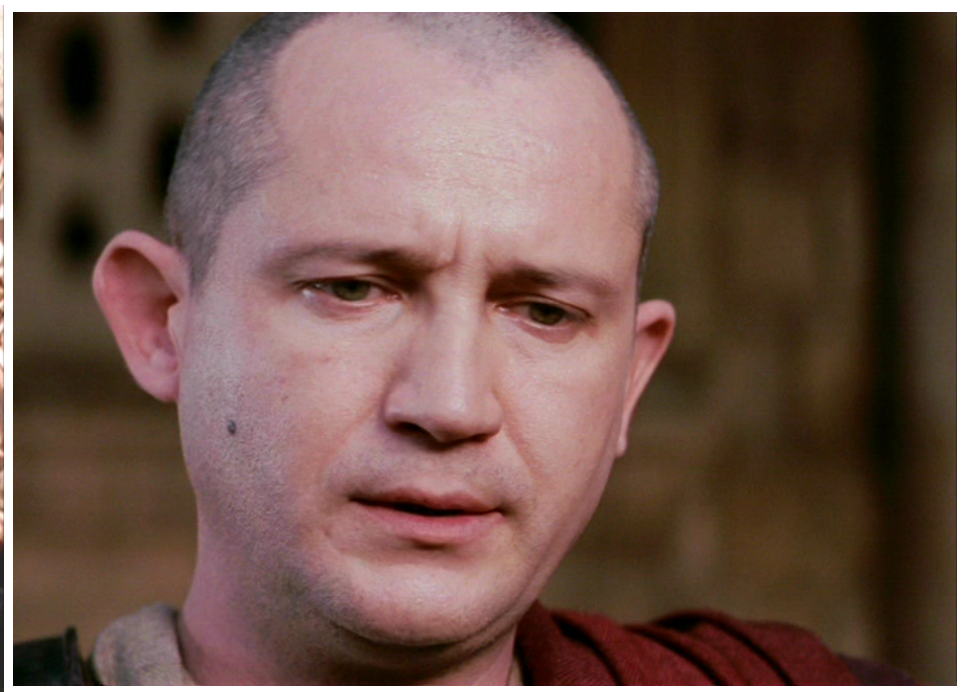




When finished, the soldiers set him aside, put a crown of thorns on his head and a robe across his body, then mocked Him as their great 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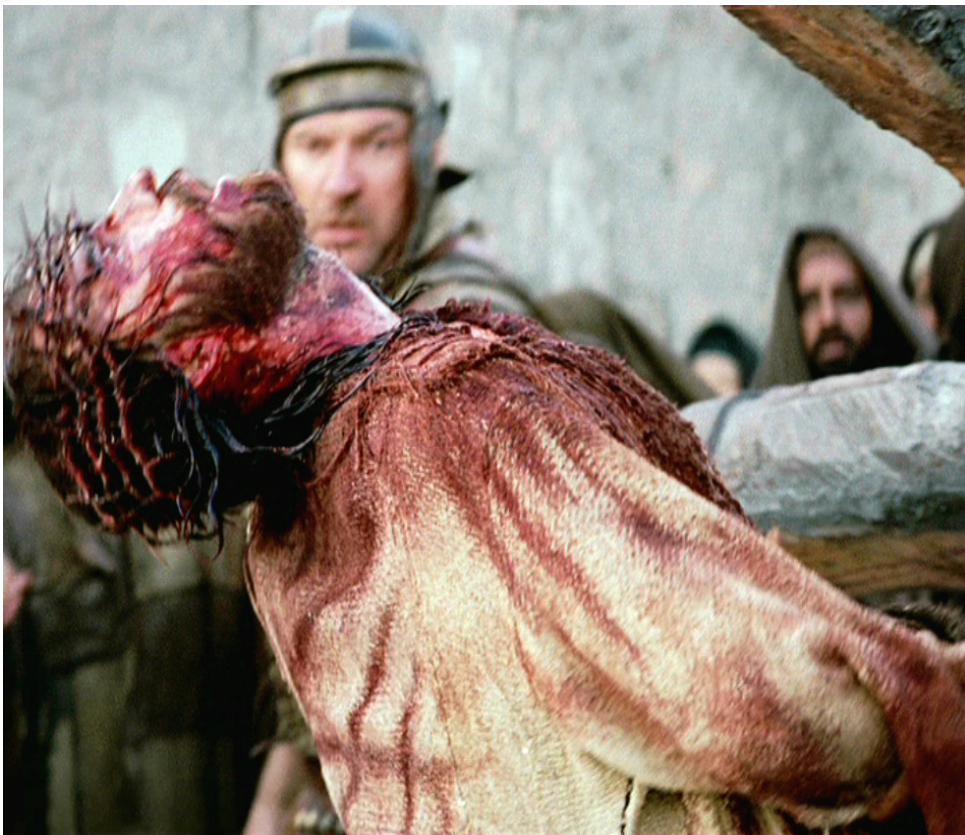
이일이 끝난 후, 군병들은 예수님을 옆에 놓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두루마기를 입히고, 그들의 위대하신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13]



After Jesus was severely beaten, His own people still demanded that He be Crucified. In order to prevent a riot, Pontius consented, and sentences Jesus to be crucified. Pontius washed his hands before the crowd and proclaimed, "I am innocent of this man's blood."

예수님이 가혹하게 맞으신후, 예수님 자신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동이 생기는것을 막기 위해서 본디오는 동의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선고했습니다. 본디오는 군중앞에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Jesus had to carry His cross out of the city and up a hill. During this time, some people mourned for Him while others mocked Him.

Being exhausted, He fell 3 times while carrying it.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그리고 언덕위로 가서 야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슬퍼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3번 넘어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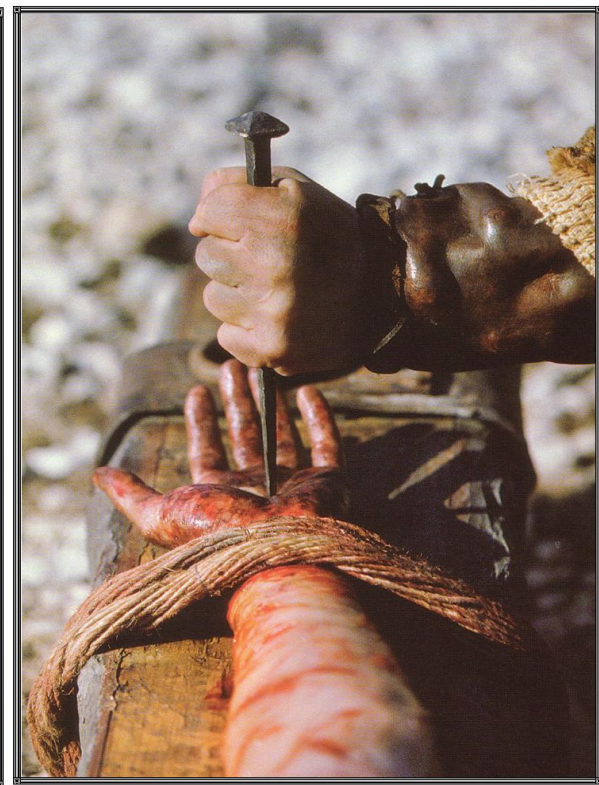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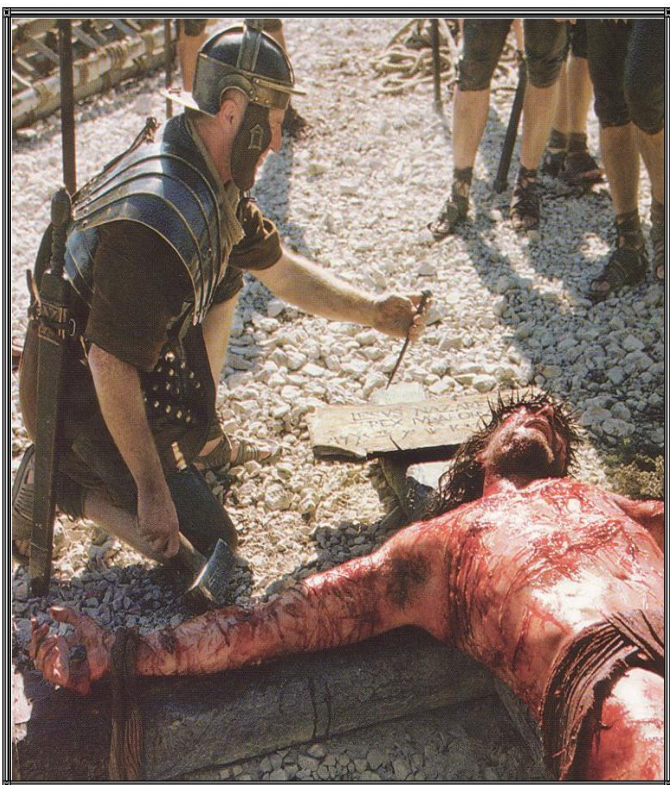
Because Jesus was too exhausted to carry His cross, the Roman Soldiers forced a man named Simon to help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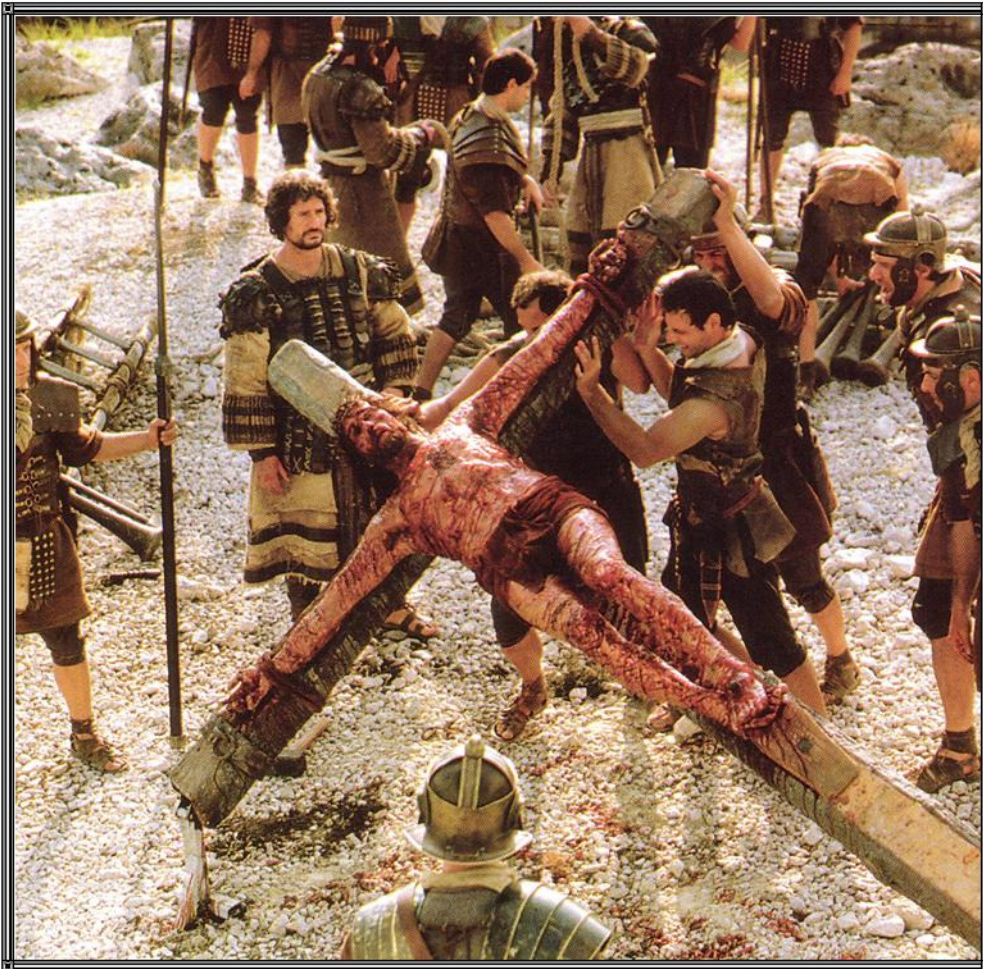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너무 지치셔서 로마 군병들이 시몬이란 사람을 억지로 시켜서 예수님을 도와주게 했습니다. 16



When they arrived at the top of the hill, the Soldiers made Jesus to lay down on the Cross, they tied Him down, and nailed spikes through His hands and f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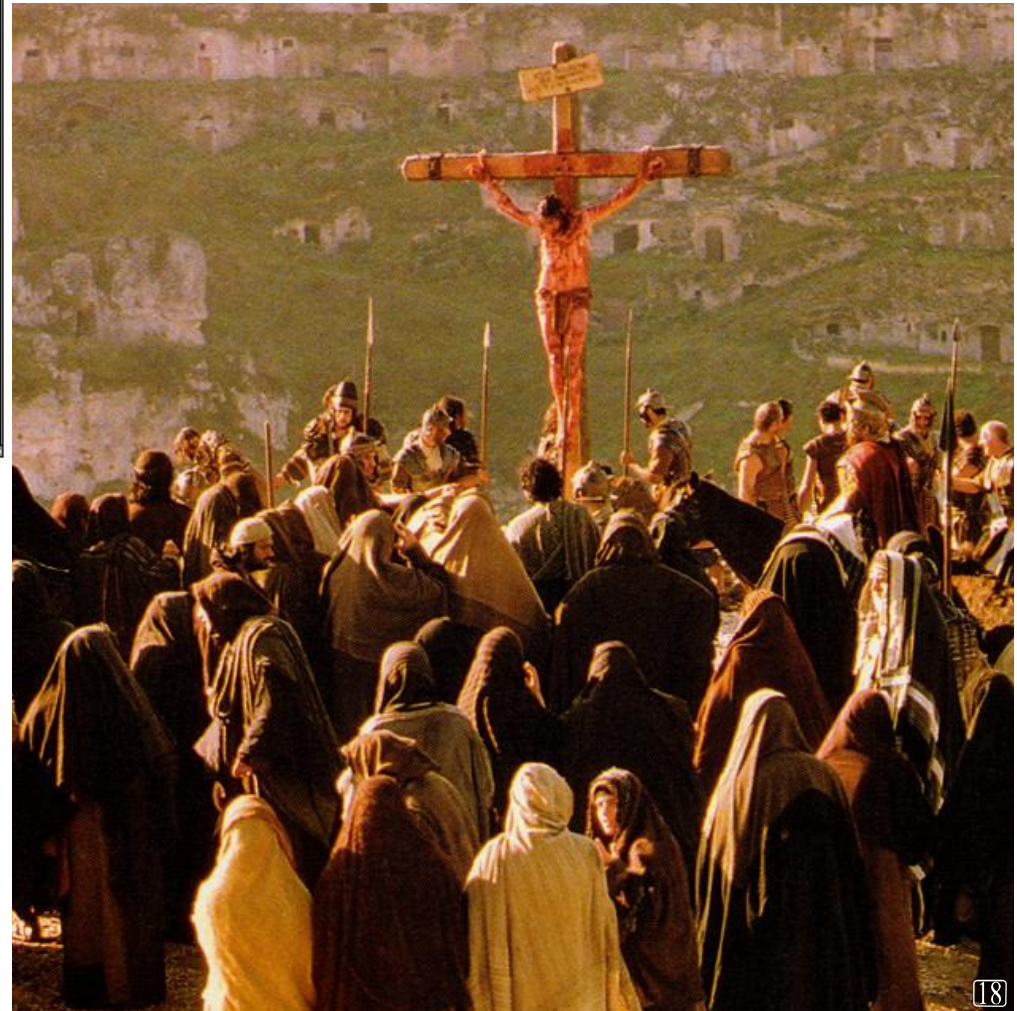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위에 눕게 하시고, 밀로 결박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The soldiers lifted Him up, and hung him for all to see. Some in the crowd mocked Him and said, "If you are the Christ, come down from the cross so that we may see and believe" and "He saved others, why doesn't He save Him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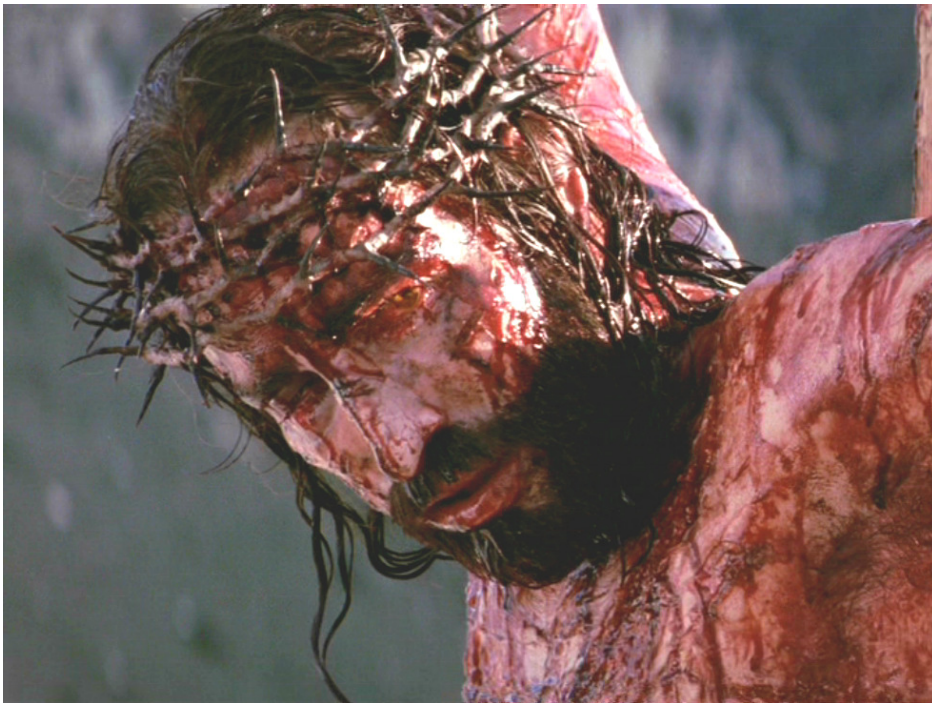
군병들은 예수님을 올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위해 매달아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만약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는 보고 믿겠다." 또 "그는 다른사람도 구원을 했는데 왜 자기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Two other men were crucified along with Jesus; one on His left and one on His right.

두명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못박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The man crucified on His left, hurled insults at Jesus, while the man on His right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enter Your kingdom." Jesus replied, "on this 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예수님의 왼쪽에 못박힌 사람은 심한 욕설을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때에 저를 생각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9]



As Jesus hung there, the Roman soldiers gambled for the clothing of Jesus.

예수님이 그곳에 매달려 계셨을 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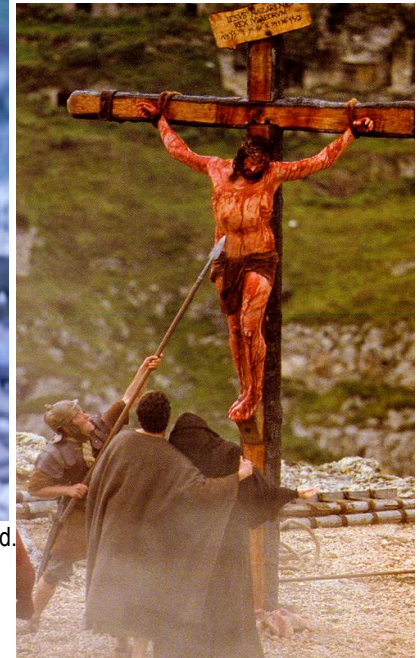


Psalms 22:(~1000 BC) I am poured out like water, and all my bones are out of joint: my heart is like wax; it is melted in the midst of my bowels. My strength is dried up like a potsherd; and my tongue cleaves to my jaws; and thou hast brought me into the dust of death. For dogs have compassed me: the assembly of the wicked have enclosed me: they pierced my hands and my feet. I may tell all my bones: they look and stare upon me. They part my garments among them, and cast lots upon my vesture.

시편 22: (~1000 BC)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들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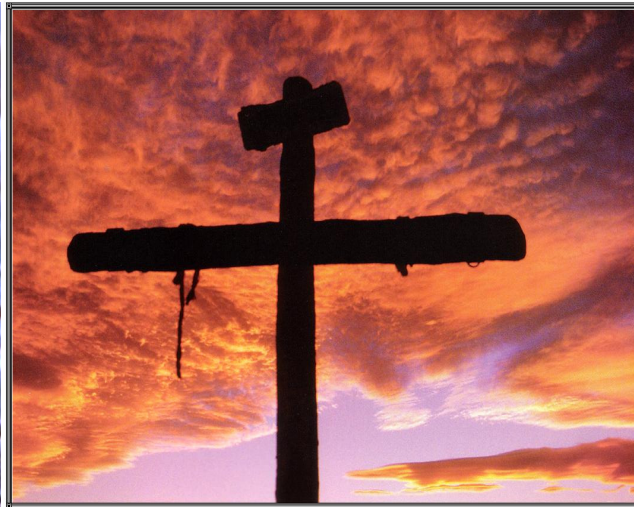


고 내 혀가 잇들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After 6 hours on the cross, Jesus died. His last words, **"IT IS FINISHED!"** Using a spear, a Roman soldier pierced the side of Jesus, bringing forth water and bl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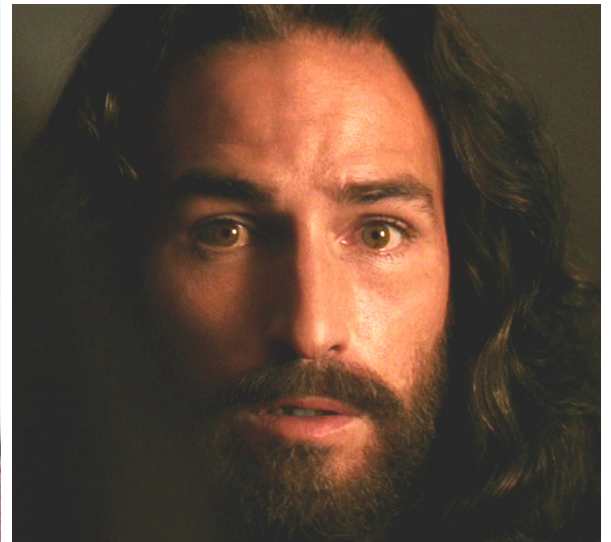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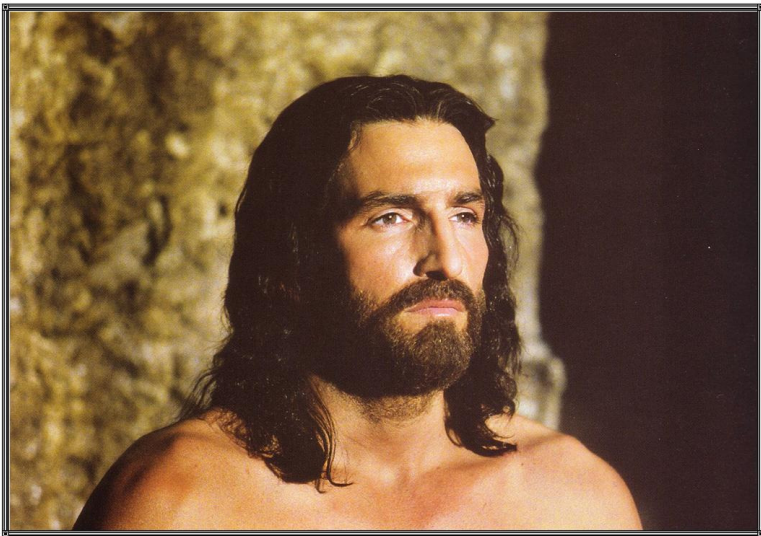
예수님은 6시간동안 십자가에 계신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After Jesus died, His believers took His body down, and placed Him in a tomb.

But days before this, Jesus said...
 (John 10:17) *"The reason my Father loves me is that I lay down my life--only to take it up again. No one takes it from me, but I lay it down of my own accord. I have authority to lay it down and authority to take it up again."*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내리고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수일 전에 예수님이...(요한복음 10: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And 3 days laterHe rose!
그리고 3일 후
부활하셨습니다!